

한국특허정보원 사회봉사단, 사회공헌활동 지속적 실시

한국특허정보원 사회봉사단은 지난 10월 6일 관악구 봉천동 소재 미인가 보육시설(샘울의 집)을 방문, 대용량 냉장고를 기증하고, 저소득층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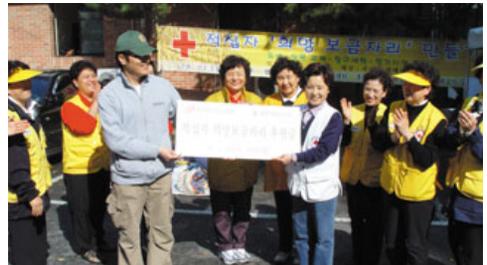
샘울의 집은 3층 단독주택의 미인가 보육시설로서, 원장 부부 이외에 8명의 아이들과 공동으로 생활하며, 주변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 운영 및 저액식사를 제공하는 곳이다.

한국특허정보원 사회봉사단은 이 시설의 낙후된 냉장고로 인해 생활하는 아이들과 공부방 이용 아이들(약 30명 가량)의 음식물을 보관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신 대용량 냉장고(684L)를 기증했다.

아울러 지난 10월 28일에는 서초·강남 적십자 봉사단이 주최하고 한국특허정보원과 한국전력이 후원한 「적십자 희망 보금자리 만들기」 행사에 사회봉사단 23명이 참가해 서초구 우면동 임대아파트 내 도배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참석한 특허문서전자화팀 이은주 사원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의 문제와 우리 정보원의 사회공헌 활동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한국특허정보원 사회봉사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소외된 이웃을 되돌아보는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할 계획이다.



'신촌밸리'와 지식재산권 조사업무 협약 체결

한국특허정보원은 지난 9월 29일 신촌지역 3개 대학(서강대, 연세대, 이화여대) 산학협력단으로 구성된 '신촌밸리'와 지식재산권 조사업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한국특허정보원은 '신촌밸리'와 지식재산권 관련 조사·분석업무 및 정보의 상호 교류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학 특허출원지원 및 특허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신촌밸리'는 서강대와 연세대, 이화여대의 산학협력단이 대학이 보유한 우수 기술 이전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대학-기업간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5월 출범한 기술이전 전담조직이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 국내외 신 기술동향 및 지식재산권 조사·분석 연구 ▲ 특허정보의 수집·분석 등에 관한 정보의 원활한 교류 및 공동 활용 ▲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 해소 및 특허정보, 연구개발 등에 대한 상호 세미나, 교육 실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대학의 우수한 기술 이전을 도모하고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산학협력체제 구현을 위한 지식재산권 정보 활용 방안을 공동으로 수립·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학경쟁력 강화와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특허정보원 유영기 원장은 "이번 양 기관의 업무협약 체결은 대학의 우수한 기술연구 개발의 효율성 제고 및 체계화는 물론, 특허정보의 활용 확산에 중요한 전환점이며, 이를 계기로 국내 산업발전의 가속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KIPI 6시그마 경영혁신 추진결과 1차 발표회 개최



한국특허정보원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지난 3월부터 추진해온 KIPI 6시그마 경영혁신 추진결과 발표회가 지난 10월 5일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대리급 이상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발표회는 한국특허정보원이 수행하는 각 사업 부문별 총 8개 과제의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지속적인 개선방안 도출을 추진한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특허정보원 유영기 원장은 "특허정보의 효율적 보급 및 활용확산의 중추기관으로서 한국특허정보원은 경영혁신을 통한 대국민 특허정보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이를 위해서는 6시그마를 통해 경영 전반의 혁신을 이휘 조직의 강한 경쟁력 제고와 고객 감동을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특허정보원은 6시그마 역량강화를 통한 혁신활동을 가속화하여 조직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